

'33.3조 동행 프로젝트' 신한금융 ESG경영 극대화

소상공인 재기 등 4대 핵심 영역서 5년간 직·간접적으로 금융 지원 고객·사회 미래성장 기여에 적극 조율병 회장 "선한 영향력 행사"



조율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지난달 1일 지주사 창립 2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 제공

신한금융그룹이 33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신한금융그룹은 사회적 약자 지원과 이의 사회적 환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고객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한 동행(同行/同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젝트 타이틀인 '동행'에는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해 '고객·사회와 함께 하겠다(同行)'는 의미와 '실질적 지원을 통해 고객과 함께 행복하다(同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신한금융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룹의 역할을 결정해 취약계층 지원에 4대 영역(△Recovery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재기 지원 △Residence : 서민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Re:Start-Up : 창업/일자리 지원, 청년 도약 지원 △Responsibility : 사회적 책임 수행)과 12개 핵심과제를 통해 향후 5년간 33조

3000억원의 직·간접적 금융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Recovery(소상공인/자영업자)'에 15조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에 12조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지원에 각각 11조 9000억원, 4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카드론, 오토금융 상환유예에 200억원, 코로나19 및 재난피해 개인고객 신용카드 결제대금 유예 및 분할 상환 지원 등에 465억원을 지원한다.

이어서 채무조정(대환대출 포함)에 2조원을 지원한다. 이에 상생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채무조정) 확대 시행에 2조원, 개인사업자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사업자 대출, 오토/상용차 금융) 참여에 597억원,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 활성화에 100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보증부대출(사이드롤)을 통한 금융지원에 25억원을 투입한다.

금리인하 등을 통한 이자부담 완화에도 1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사회망씨 신규대출 금리 1.5% 인하를 추진하며, 신용대출 성실상환 취약차주 6% 초과 이자분에 대한 원금감면 실시한다. 또한 실업자 및 휴·폐업자, 자연재해 피해자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납입 유예, 취약채무자 연체이자 감면 등을 시행한다.

이어서 'Residence(서민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에는 총 13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주택구입 금융지원에 9조 7000억원을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 지원에 7조 5000억원 및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금의 0.3% 수준의 현금 지원을 실시한다. 추

신한 동행(同行/同幸) 프로젝트			
01 Recovery	02 Residence	03 Re:Start-up	04 Responsibility
◆ 소상공인(개인 포함) 및 중소기업 재기 지원	◆ 서민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 창업/일자리 지원 ◆ 청년 도약(서민도약) 지원	◆ 사회적 책임 수행
15.1조	13.6조	4.7조(예산 1,675억)	(예산) 1,239억+α
핵심과제 ◆ 자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12조 ◆ 채무조정(대환대출 포함) 지원 21조 ◆ 금리인하 등을 통한 이자부담 완화 1조	◆ 주택구입 금융 지원 9.7조 ◆ 전월세자금 금융 지원 3.6조 ◆ 취약차주 생활자금 0.3조	◆ 창업촉진 및 벤처 생태계 구축지원 2조 ◆ 청년 자산증대 지원 2.7조 ◆ 일자리 창출(1,675억 예산) 1.7만명 고용창출	◆ 금융사각지대(매출조사노선개방)지원(832.5억 예산) ◆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후원(234억 예산) ◆ 청년층 출산(육아)교육(372.5억 예산)

가적으로 △취약차주 대상 신규 주택대출 고금리 0.4% 인하 △금리상한형 주택대출 0.2% 가산금리 면제 △주담대 기본유치주 기한연장 프로세스 신설 △청년도약대출 등 대출/투자 취급 규모 연간 2000억원 이상 추진 △청년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상 1000억 금융공공금 등을 진행한다.

전월세자금 금융 지원에는 △취약차주 대상 신규 전세대출 고금리 0.4% 인하 △청년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 △월세 카드납부 지원을 위한 'My월세' 서비스 수수료(1%) 6개월 면제 △청년 전세 자금대출 대상 0.2% 금리우대 △채주도내 거주 신용부부 및 사회 초년생 연·월세 우대자금 대출 등 총 3조 6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취약차주 대상으로 총한도 3000억원의 긴급 생활자금 비상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12만명으로 평균 대출금은 2500만원이다.

'Re:Start-up(창업/일자리·청년도약)'에는 4조 8675억원을 공급한다.

창업 촉진 및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5년간 2조원을 투입한다. 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전략적투자자(SI)펀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그룹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통합 스타트업 지원 컨트론타워 설립할 예정이다.

청년우대 금융상품에는 2조 7000억원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목돈마련금리우대 적금 2조 3000억원, 청년 특화 금융상품 4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는 총 16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 7000명 규모의 고용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Responsibility(사회적역할수행)'에는 1239억원+α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취약기아정 제지원 및 학

대피해아동 지원 △취약,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보육시설 퇴소 아동 지원 함께가서 기부 캠페인 등 금융사각지대 지원에 최소 63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장애 인 일자리 지원 및 후원과 청년층 출산/육아(교육) 지원에는 각각 234억원, 372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신한금융은 이번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기 1회 그룹경영회의를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율병 신한금융 회장은 "고객과 사회의 성원으로 성장한 신한금융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은 '공감과 상생의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며 "신한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호 기자 sungro51@sporbiz.co.kr

핑핑 얼어붙은 가상자산... NFT 시장도 흑한기 오나

가상자산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다만 기업들은 NFT 사업 진출을 이어가고 있어 다소 희망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고 자금세탁과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이 가상자산 분석 데이터체인 툴 에널리틱스의 자료를 인용한 것에 따르면 NFT 거래 규모는 지난 1월, 역대 최고액인 170억달러(약 24조 4800억원)에 이르렀으나 9월에는 4억 6600만달러(약 6710억원)로 쪼그라들었다.

지난 1월 대비 거래 규모 97% ↓
기업들 잇달아 사업 진출속에도
손실위험 크고 자금세탁 우려

NFT 시장의 규모가 최대치 대비 97%나 폭락한 것이다. 이는 미국 연준비제도(연준-Fed)의 고강도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 긴축에 나서자 가상자산 시장에 거울이 찾아와 NFT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NFT 시장의 90% 가량을 점유 중인 오

픈씨의 거래량도 지난 7월에는 두 달 전 대비 75%가 감소했다. 또한 NFT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알려진 프로젝트 BAYC(Bored Ape Yacht Club)는 한 때 40만달러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약 8만달러 수준으로 추락했다.

NFT 시장에 대한 우려는 시장의 하락세와 함께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한국 금융연구원의 박해식 선임연구원은 "투자상품으로서 NFT에 대한 우려" 보고서 통해 NFT가 게임 외에도 미술, 음악, 스포츠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 가능한 분야에서 발행할 수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NFT의 대체할 수 없다는 고유 특성으로 인한 불안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NFT 시장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높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손실위험이 크고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한 투자 기회가 주어질 뿐 아니라 높은 수수료로 인해 실제 수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NFT의 소비자들과 관련해 "팬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급등하고 감소하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분석하며 팬심으로 이뤄지는 강한 NFT 소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루나-테라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며 NFT 시장을 바라보는 기관의 시선 역시 부정적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7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FATF 감독 기준' 보고서를 발표하며 NFT가 자금세탁과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FATF는 "NFT가 자금세탁과 위시트 레이팅 등 불법 금융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업체들도 NFT 시장에 뛰어들면서 NFT로 인한 금

용 위험이 전방위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 말했다.

이처럼 NFT 거래량이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시장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NFT 사업 진출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스타벅스는 자체 멤버십 NFT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프라다, 나이키 등 대형 기업들의 NFT 시장 진출 계획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준영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NFT가 나타내는 소유권의 유행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NFT 거래소 역시 NFT의 유행과 타깃 사용자층에 따라 분화 발전해갈 것이다"며 "거래소가 타깃하는 유저층과 그들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할 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현욱 기자 hhh8931@sporbiz.co.kr

“ESG,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당장 ESG〉

“ESG,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지?”

ESG 실무 가이드

★★★

포스코 출신 ESG 실무 담당자가 쓴 ESG 실무 지침서!

★★★

홍보팀, 인사팀 등 전 조직이 함께하는 ESG 경영 노하우!

★★★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까지 경영의 필수조건

<지금 당장 ESG> | 신지영 지음 | 280쪽 | 16,000원 | 천그루숲 퍼냄